

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·인력 효율화 계획



I 공공기관 정원 △12,442명 조정 (전체 정원의 △2.8%)

- △17,230명(전체 정원의 △3.9%)를 감축하고,
4,788명(1.1%)를 국정과제 수행,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
- '09년 이후 14년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



II 유형별 효율화 및 재배치



1. 기능조정 233개 기관 717건 / △7,231명

민간 경합

84개 기관 / △1,758명

지자체 경합

20개 기관 / △290명

비핵심 업무

109개 기관 / △2,093명

수요감소· 사업종료

121개 기관 / △2,950명

유사·중복

24개 기관 / △140명

2. 조직·인력 효율화 228개 기관 / △4,867명

조직통합· 대부서화

130개 기관 / △969명

지방·해외조직 효율화

40개 기관 / △1,114명

자원인력 조정

106개 기관 / △936명

업무 프로세스 개선

61개 기관 / △1,665명

상위직급 축소

61개 기관 / △183명

3. 정·현원차 축소 157개 기관 / △5,132명

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·현원차를 축소

4. 인력 재배치 223개 기관 517건 / +4,788명

핵심 국정과제

143개 기관 / +2,577명

필수시설 운영

28개 기관 / +1,056명

안전 분야

33개 기관 / +646명

법령 제·개정

49개 기관 / +282명

기타

48개 기관 / +227명

III 기대효과



- 공공기관의 역량을 **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**하고, **생산성을 제고**하여
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 마련
- 연간 최대 7,600억원**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